水產物 流通改善을 위한 課題

柳 忠 烈
(釜山水產大學 敎授)

Ⅰ. 序 言
Ⅱ. 需給 및 流通量
Ⅲ. 消費地流通
Ⅳ. 產地流通 및 水協의 役割

Ⅰ. 序 言

水產業이 國民經濟에 대해 가지는 意義는 다음 세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는 國民에게 海洋性動物性食品 특히 蛋白質의 供給이라는 營養上의 意義이다. 둘째는 稼得率 높은 水產物의 輸出에 의한 國際收支上의 意義이고, 세째는 水產業 자체가 가지는 雇傭이라는 產業聯關上의 意義이다. 이들 意義의 比重도 대개 앞의 順位에 따라 評價되고 있다. 이와 같은 水產業의 本質的 意義에 따라 水產業의 流通改善이 追求되어야 할 것이다. 生存을 위해서 良質의 動物性蛋白質이 效率的으로 供給되어야 할 것이며, 國際的으로는 比較選擇的으로 有利한 海洋性漁獲物이 輸出되어야 할 것이며, 漁民의 落後된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방향으로 流通改善을 摸索해가야 할 것이다.

流通改善의 論議는 원래 두가지 側面에서 提起된다. 하나는 生產者所得水準의 相對的 低位性을 流通側面에서 改善시키려는 努力이며 이 分野는 當該產業에 從事하는 사람이나 硏究者들만의 關心事였다. 다른 하나는 消費者支拂價格의 昻騰이라는 側面에서 流通問題가 論議되고 있다. 이는 全國民的인 關心事로 활발하게 그 矛盾과 課題가 論議된다. 國際的으로 보아서도 流通改善의 論議는 後者의 側面에서 强力한 政策的 變動을 일으키는 事態가 一般化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農水產物의 流通改善論義가 주로 小數의 學者나 專門家들에 의해 앞의 側面에서 硏究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70年代 經濟의 高度成長과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 農水產物 특히 生鮮, 新鮮食品(Perishable Food)의 강한 需要增大는 이들 食品價格의 급격한 騰貴를 招來했다. 이와 같은 事態에 당면하여 社會經濟의 安全基調가 위협받게 되자 서둘러 이들 食品을 輸入까지 하려는 食糧政策의 大轉換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時點에서 流通改善의 論議는 거의 後者의 側面에서 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이 되었다.

水產物流通硏究를 위해서는 農畜產物과 비슷한 商品性을 가지나 基本的으로 異質性을 가진 條件을 前提로 하여 그 接近이 檢討되어야 한다. 첫째 漁獲物의 生產者價値는 어떤 產業보다 水產業의 경우 廣範圍한 領域에 걸쳐 分散된다는 特性을 가진다. 同一品質 品種의 漁獲物이라 하더라도 이의 捕獲에 參與하는 漁業資本의 階

層分布가 심하다는 價値實現上의 異質性을 들 수 있다. 둘째는 開港以後 여러가지의 政治的, 制度的 壓力과 漁業生産 그 자체의 特性으로 인하여 沿岸에 一次都賣産地市場의 秩序가 完成確立되고 있다는 歷史的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는 構造上의 特色을 들 수 있다. 세째는 農畜産物의 再生産을 위한 硏究는 長久한 時間을 두고 계속되어 왔으나 水産業에 있어 捕獲의 對象이 되는 水界資源生態에 관한 硏究는 매우 일천하며 環境의 相異로 硏究가 어려운 곳이다. 流通改善이 우리 子孫에 遺産으로 물려줄 수 있는 海洋資源의 永續的管理란 側面을 配慮한 立場에서 그 效率性이 追求되어야 한다는 異質性을 前提로 해야 할 것이다.

Ⅱ. 需給 및 流通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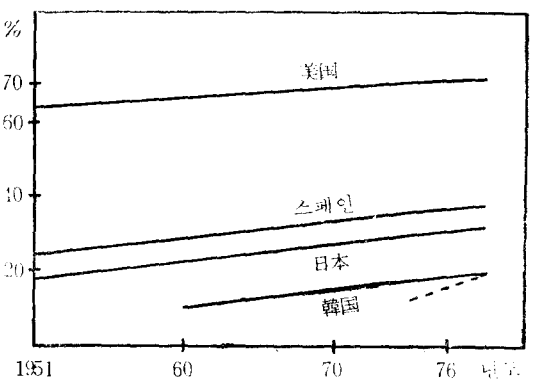
1. 需　給

人間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財貨를 消費해야 한다. 그 중에서 食品의 消費는 傳統을 固守하려는 保守性이 매우 강하다. 우리의 먼 祖上이 海岸線을 따라 移動定着하는 過程에서 해삼, 멍게, 미역, 김 등을 처음 먹은 사람의 勇氣는 文化發展에 크게 寄與한 사람으로 마땅히 評價받아야 할 것이다.

傳統的 食生活이 여러가지 刺戟과 要因에 의해 크게 轉換되려는 時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이나 美國의 食生活도 과거에는 澱粉質食料品에 크게 依存하던 狀況에서 오늘날의 食品消費類型으로 變化하였다. 이들 變化를 可能케 했던 要因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所得要因이다. 일반적으로 所得의 增大에 따라 食品消費量이 增加하고 多樣한 食品을 嗜好하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營養學的 變化는 蛋白質攝取에 대한 消費者嗜好의 變化이다.

蛋白質營養은 植物性食料品에서는 주로 콩에서 攝取하며 動物性食料品에서도 攝取한다. 우리의 傳統的 食生活慣習으로서는 植物性食品에서 주로 蛋白質을 攝取했었다. 그러나 최근 蛋白質의 攝取量 중에서 動物性食品이 占하는 比率이 높아지는 傾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美國과 같은 高度開發社會에 있어서는 蛋白質 중 動物性食品이 차지하는 比率이 60%를 넘고 있다. 이런 社會에서는 營養過剩狀態로 保健上 이의 攝取를 減少시키거나 그 이상 攝取하지 않으려는 傾向이 나타난다. 이들 比率의 推移를 槪觀할 수 있는 그림과 傾向式은 다음과 같다.

圖 1 動物性 蛋白質 섭取率 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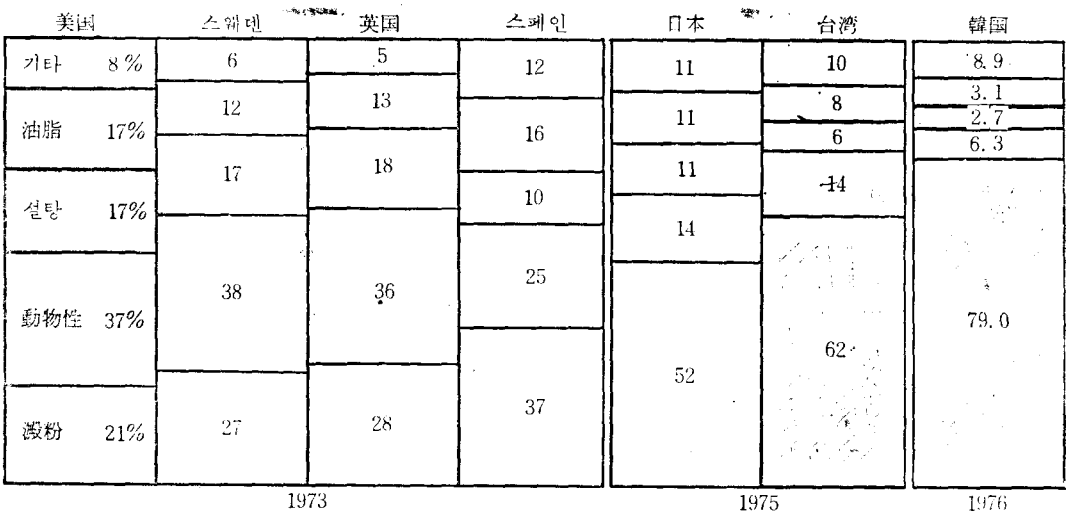


趨勢方程式;

$Ja(51-75)=19.4123+1.1523t$ $(r=.9796)$
$U.S(51-73)=69.9692+0.1601t$ $(r=.4527)$
$Sp(52-73=23.9127+3.2393t$ $(r=.9818)$
$Ko(62-76)=14.69+0.4528t$ $(r=.7822)$
$Ko(71-76)=16.8+1.300t$ $(r=.9262)$

스페인은 60年代初까지 澱粉質食品에 約 60%를 의존하던 南歐的類型의 나라였다. 그 후 급격하게 食生活類型이 北歐化되면서 動物性蛋白質의 比重이 增大되고 있다. 62年부터의 長期資料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動物性蛋白質比重이 日本보다 낮은 傾向値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71年부터의 資料를 기초로 하여 分析해보면

圖 2 食品別消費(1人1日當 營養供給量)



日本보다 높은 增加率을 보이며 이 傾向이 최근의 食生活의 動物性食品指向性을 나타내는 것이라 判斷할 수 있고, 時系列上 이들 食品에 대한 需要가 크다는 것을 暗示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食生活이 쉽게 유럽型으로 바뀌어지리라고는 速斷하지 못한다. 그것은 유럽사람들 만큼 動物性食品에 嗜好를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沮害要因은 米食生活類型의 傳統性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최근의 유럽型食生活의 標準內容과 米食文化圈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比較이다.

유럽은 動物性食品의 攝取率이 25~38%이다. 우리와 같은 米食生活圈에 속하는 自由中國과 日本을 볼 때 動物性食品에 依存하는 營養比率이 모두 14%의 水準이 되고 있다. 日本의 蛋白質攝取量에서 動物性蛋白質의 攝取量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日本의 1人1日當 動物性蛋白質 攝取量

(國民營養調査 및 需給表)

區分 \ 年度	55	60	65	70	72	73	74	75	76
國民營養調査(gr)	22.3	24.7	28.5	34.2	40.4	41.9	37.9	38.9	38.1
食料需給(gr)	—	21.2	26.9	31.8	34.2	34.9	35.1	35.7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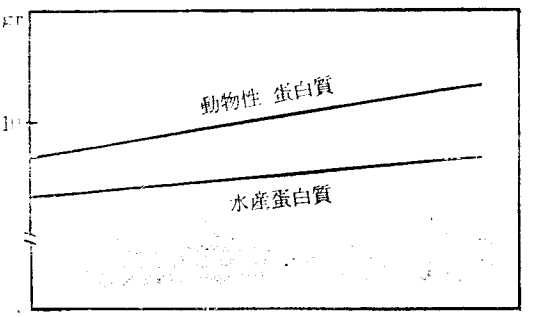
資料：日本 食料需給表(1976年度)

國民營養調査에서 보면 74年부터 蛋白質의 攝取量이 減少하기 시작했고 食品需給表上으로는 74年부터 鈍化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菜食嗜好에서 오는 結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76年 현재 動物性食品依存度가 6.3%이나 최근과 같은 급격한 食品內容의 變化로 보아서 상당히 빠른 期間內에 14~15%水準에 到達할 것이다. 이와 같은 食品文化圈의 背景과 高度成長을 생각할 때 水產物의 需要推計는 5年間隔쯤으로 해야지 이를 10年이나 15年 정도로 長期推計를 하면 아직 畜產物과 水產物間에 充分한 競爭, 代替關係의 時系列資料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엉뚱한 結果를 招來하게 될지도 모른다.

動物性蛋白質 중에서 水產物과 다른 食品間의 攝取量推移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蛋白質 중 魚介類가 占하는 比重이 絕對的이었으나 그 消費增加率은 다른 食品보다 鈍하다는 것을 傾向式으로 알 수 있다. 現在까지를 보아도 그 增加率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輸入商品의 大量普及化에 따라 그 增加率은 더욱 鈍化되리라 豫想된다.

圖 3 動物性蛋白質 중 食品間變動(1人1日攝取量)



趨勢方程式;
動物性 蛋白質(g_r)=7.4375+0.5632t (r=.9258)
水產蛋白質(g_r)=4.9658+0.3610t (r=.8687)

一般的인 需要推定을 하는데 있어 獨立變數로 所得, 人口, 物價要因이 利用된다. 政府의 經濟計劃, 韓國開發院의 推計 그리고 農村과 都市化의 傾向 등을 參考로 하여 5가지의 模型으로 國內의 水產物需要를 推定했다.[1] 이 模型의 推定量을 77年을 基準으로 81年까지의 需要量增加率만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2 模型別需要量增加率

	模型 I	II	III	IV	V	平均	S
基準年(197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81)	1.6020	1.5786	1.4245	1.4740	1.3847	1.4928	0.0848

77年을 基準하여 81年에는 需要量이 約 50% 增加하리라는 結果로 나타났다. 이 水準에 到達하지 못할 때는 現在와는 다른 價格水準으로 均衡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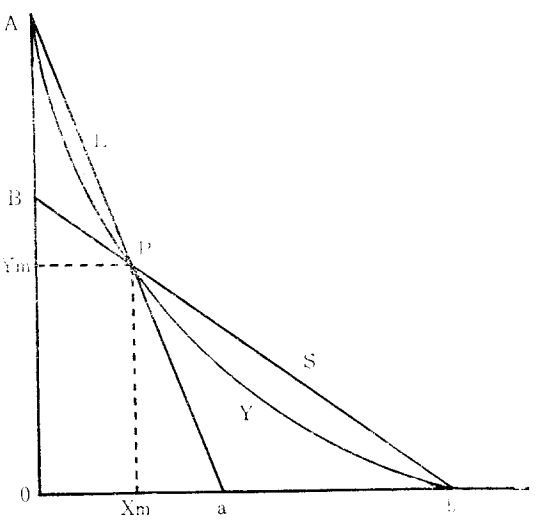
2. 流通量

漁獲物이 產地漁港의 一次委託販賣市場에 거의 全量이 集荷되고 있다는 것은 協同組合共販事業의 훌륭한 成果이다. 이곳에 集中된 水產物이 얼마 만큼 內陸地에 出荷되고 그곳 消費市場에서 消費되는가를 判定한 販賣資料나 課稅資料는 없으며 단지 一時的인 追跡調査나 信憑性없는 事務的處理에 의해 區分되고 있다. 揚陸地의 漁港都市에서 消費되는 量과 內陸地로 出荷되는 量을 比較的 正確히 測定하기 위해 몇가지의 假說을 前提로 하여 數理的方法에 의해 다음과 같이 分析해 보았다.[2]

漁港에 揚陸되는 漁獲物은 競賣에 의해 全量 仲買人에게 競落되고 있다. 競落에 參與하는 仲買人은 自己計算과 危險負擔으로 分荷, 販賣하는 業態를 가진다. 이 業態認識에서 當局과 筆者間에 根本的인 見解의 差異가 있다. 產地市場 仲買人은 配給機能面에서 內陸地出荷機能과 當該都市消費販賣機能으로 分化되고 있다. 앞의 機能은 大規模仲買人들에 의해 Commission Basis로 행해지며 後者의 機能은 小規模仲買人들에 의해 Commercial Basis로 행해지고 있다. 이들 規模의 階層分岐는 다음과 같은 解析的 方法에 의해 區分될 수 있을 것이다.

Y軸은 仲買人의 年間買上額을, X軸에는 當該市場에 있어서 買上價額에 따른 順位로 代表시켰다. 우리나라 主要漁港의 仲買人分布는 매우

圖 4 配給機能의 分析



Y : 買上分布 理論曲線
$L.Aa$: 擴大規模型(最高位 買上 基準 三角形) 直線
$S.Bb$: 縮少規模型(全數 仲賣人 基準 三角型) 直線

正確하게 Y曲線($\mathrm{Log}Y_i=A-BX$)에 適合性을 보임을 알았다. 直線 Aa와 Bb의 交點 P가 大規模와 小規模를 折衝, 均衡, 分岐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Y曲線內의 1位에서 X_m位까지가 大規模仲買人들의 買上價額, 즉 內陸地出荷價額이며, X_m位에서 b位까지가 小規模仲買人들의 買上價額, 즉 當該都市消費分이다. 이를 積分方式에 의해 求하면

$$\int_{0.5}^{Xm} a^u du = \int_{0.5}^{Xm} 10^{A-BX} dx = \text{出荷價額}(S_1)$$

$$\int_{Xm}^{b} a^u du = \int_{Xm}^{b} 10^{X-BX} dx = \text{當該都市消費價額}(S_2)$$

이 方法을 利用하여 釜山魚市場의 仲買人들에게 直接 採聞한 바로는 理論値와 거의 一致하였다. 出荷價額(S_1)은 消費地都賣市場의 客商들에게 Commission Basis로 出荷되며 S_2는 當該都市小賣商들에게 相對賣買에 의해 去來되고 있다. 1973年度 主要漁港의 仲買人資料를 解析的方法으로, 出荷價額比率(S_1)과 當該地域의 相對賣買比率(S_2)을 計測하고, 同市場管理人으로부터 內陸地出荷分과 當該都市消費分의 資料를 얻었다. (이 資料는 長期間 그곳 去來에 대한 經驗과 實際 採聞資料로 얻었음) 이를 區分 表示하면 다음 表와 같다.

理論値의 分析資料는 買上價額으로 測定되었으나, 市場管理人의 評價는 移動物量으로 評價하기가 쉽다. 理論値의 出荷分이 經驗値보다 작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主要漁港 중에서도 揚陸量이 많은 釜山, 仁川, 馬山, 木浦 등의 都市가 出荷分에 큰 比重을 점한다. 年度에 따른 揚陸量變動을 보면 漁獲量中 20~30%는 沿岸部로서 產地委販量 중에서 相對賣買形式으로 消費되며, 70~80%가 產地市場에서 內陸地로 物的流通手段을 빌어 移動되고 있을 것이다. 이 流通量을 效果的으로 內陸地에 出荷시키기 위해서는 盛漁期의 一日揚陸量에 對應될 수 있는 貯藏輸送施設이 準備되야 한다.

表 3 配給分岐(%)

產地市場	理論値		經驗値	
	S_1	S_2	S_1	S_2
木浦	68.35	31.65	85	15
江口	71.80	28.20	90	10
三千浦	69.37	30.63	60	40
東草	67.88	32.12	70	30
仁川	76.92	23.08	85	15
群山	66.45	33.55	—	—
麗水	74.61	25.39	—	—
馬山	56.70	43.30	62.3	37.7
釜山	69.40	30.40	70	30

Ⅲ. 消費地流通

1. 消費者市場의 課題

李朝 500年을 통해 商業政策은 水產物流通이 主導하여 온 것 같은 느낌이다. 前期的 流通을 成立시킨 要因들로서 여러가지가 있다.[3] 낮은 人口增加率과 所得의 硬直性은 都市에 있어 需要를 沈滯시켜 獨占的이며 閉鎖的인 六矣廛制度를 存續시킨 根本要因이다. 壬辰亂 이후 漢陽에 급격히 人口가 集中됨에 따라 內魚物廛制度를 打破하고 外魚物廛까지 獨占體制 속에 吸收케 되었다. 그 後 여러 消費財에 대한 物種商廛이 合法的인 都買權을 가지려는 運動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反撥로 「辛亥通共」政策이 施行되었다. 官商都買와 이에 對抗하던 私商都買는 모두 그들의 主要對象商品으로 명태, 굴비, 멸치와 같은 低次加工品이었다. 生鮮形態로 內陸地까지 輸送, 貯藏할 物的手段을 갖지 못한 時代에 前期的流通이 可能했던 것이다. 開港以後 六矣廛의 獨占權은 日本商人들에 의해 否定되었으며 韓日合併 이후 市場規則의 公布로 「初行爲市」라

는 道路邊에 開設된 都買廛, 客主廛의 小賣行爲가 公設市場에 移轉되었다. 鐵路輸送開設에 따라 大量으로 供給되는 生鮮類의 都賣行爲는 日人들이 創設한 競賣會社로 分化되어 갔다.

漁業의 主導權과 商行爲 특히 都賣業의 支配權을 日人들이 가졌던 日帝時代에는 一次產地로부터 內陸地都賣市場에 集荷되는 比率은 거의 完全했다. 解放後 日本商人資本이 撤收하자 地方自治團體의 所有가 되는 都賣市場을 利權視하여 運營經驗과 資本도 없는 似而非 都賣人이 獨占的인 都賣代行權을 行使했다. 荷主가 이들에 託送하는 것은 生鮮의 管理販賣와 適正價格의 實現이 어려워 자연히 상당한 販賣知識과 資本을 가진 商人들과 깊은 去來關係를 맺게 된다. 이들이 客商, 客主, 物產客主業이라는 中間委託販賣機關이다. 이들의 生態는 都賣市場法人體의 集荷力弱化를 바라며 價格形成의 混亂과 無秩序를 志向하고 類似 都賣業을 일삼으며 貯藏施設을 利用하여 前期的利潤을 耽하며 法的規制를 피하기 위하여 形式的으로 競賣에 上場케 하며 價格을 操作하며 微弱한 都賣法人과 結託하여 出荷로부터 手數料와 稅額을 一部 徵收, 納付하여 橫領한다든가 모든 智略을 動員하여 不法行爲를 행하며 近代的 流通을 沮害하고 있다. 이들의 발호는 獨占的 單數 都賣代行法人制度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人口의 2割이 集中되어 있는 서울의 都賣市場이 제 機能을 갖지 못하고 類似都賣業으로 인해 流通秩序가 正常化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都賣市場의 集荷率(market through put)을 다음과 같이 推定했다.

1923年 92.83%[4], 1967年 53.6%로 이것은 國稅廳課稅資料에서 推定했는데[5], 實質的으로 客商들의 集荷量은 다만 手數料徵收만을 위하여 報告된 金額일 것이다. 1970年 22.58%, 1975年 73.7%[6]로 이것은 全國에서 類似都賣業이 없는 基準都市를 찾아 그곳 集荷價額을 基準하여 몇 가지의 指數를 假說로 하여 理論的模型에 의해 推定한 集荷率이다.

서울의 法定都賣市場의 集荷率은 75年을 頂點으로 하여 制度가 農水產物都賣市場法에서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法으로 바뀜에 따라 다시 下落될 것이 豫想된다.

生鮮水產物의 所有權移轉에 따른 構造的 缺陷을 쉽게 알기 위해서 최근 실시된 價格追跡調査의 結果를 消費者支拂價格을 基準으로 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7].

表 4 流通段階別 消費者支拂價 分布

流通段階	期間 78.7.31~8.12 (고등어)			期間 78.5.1~5.8		
	서울 (노량진)	大田	大邱	서울 (고등어)	서울 (중부, 조기)	대전 (조기)
	(%)	(%)	(%)			
消費者	100	100	100	100	100	100
小賣商	47.92	28.95	14.52	22.86	35.99	14.29
消費地中都賣商	−4.25	—	5.79	3.57	6.48	—
〃 仲買人	2.2	7.89	4.51	2.14	—	7.14
〃 客商	−1.66	22.5	24.06		0.77	12.36
產地仲買人	2.5	1.18	1.94	14.29	2.70	1.93
生產者	50.00	39.47	47.05	57.14	54.05	64.29

금년 5月과 8月의 調査만으로 斷定하기는 곤란하나, 이 調査에 나타난 바로는 消費地 委託客商이 占하는 比率이 너무 크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서울에 있어서 客商의 生態는 巧妙한 會計處理로 아마 調査者에게 쉽게 捕促되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客商과 中都賣商은 施設 및 制度的補完으로 어느 정도 排除되리라 믿는다. 參考로 日本과 美國의 段階別支拂價分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5 日本의 流通段階別 價格構成比 (1970)*

	生產者受取 (%)	中間經費	小賣粗利益
水產物(오징어, 전갱이, 고등어)	44.1~65.0	0.4~20.9	30.5~45.5

* 宇野政雄, 食品流通への挑戰, p. 85

表 6 美國의 段階別 構成 (1969~71)*

	Fresh haddock fillets	Fresh flounder fillets	Fresh cod fillets	Frozen ocean perch fillets	Halibut steaks (fresh & frozen)	Fresh king salmon steaks	Dressed fresh king salmon	Canned pink salmon	Canned tuna chunk	Canned tuna chunk	Live American lobster	Fresh blue crab meat	Frozen peeled shrimp	Fresh and frozen sea scallop meats
By maketing functions														
Retailing	17.80	34.57	30.04	37.07	19.46	13.70	9.09	32.68	21.31	19.48	18.03	28.05	19.23	20.14
Wholesaling	7.23	11.44	9.46	15.50	8.87	26.26	27.90	11.97	12.95	11.50	29.47	9.96	13.72	7.45
Processing	18.55	20.15	25.37	22.53	24.24	18.20	24.67	29.87	32.24	29.30	—	37.69	20.83	—
Harvesting	56.41	33.84	35.11	24.88	47.40	41.83	38.31	25.36	33.48	39.71	52.49	24.27	46.19	72.34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rwin Penn, MFR Paper 987, *Price Spreads of Fish Products*, p. 8

우리나라 都賣段階의 比重의 縮少를 위해서는 出荷主가 직접 都賣法人 앞으로 Commercial Basis로 委託出荷할 수 있는 環境이 要求되며 中都賣商의 排除를 위해서는 都賣市場에 仲買人이 직접 販賣할 수 있는 施設과 增員이 要求된다.

食品需給表에 의한 우리나라 1人 1日當 水產物平均供給量은 65.49g이다. 서울의 常住人口와 流動 및 隣近人口까지를 800萬으로 보았을 때 1日 서울의 水產物平均搬入量은 523,920kg이 된다. 그러나 盛漁期와 盛需期의 搬入量을 700t 정도로 보며 未來의 施設로 1日 1千t 가량을 暫定的으로 豫想하여 이에 必要한 施設規模를 外國의 예로 比較하여 보았다.[8]

서울의 1日 水產物去來量을 1千t으로 假定했을 때

① 都賣場建物 1日 基準都賣去來量……a

1m²當 適正去來量(野菜 70kg, 果實 150kg, 魚類 75kg)……b

必要面積 $= \frac{a}{b}$

建物面積 = {必要面積 × (1 + $\frac{1}{4}$通路面積)} + 荷置場

② 仲買人賣場建物

1日 基準仲買去來量 = 1日 基準都賣量의 %……a

1m²當 適正去來量(野菜 50kg, 果實 100kg, 魚類 50kg)……b

必要面積 $= \frac{a}{b}$

建物面積 = {必要面積 × (1 + $\frac{1}{3}$通路面積)}

③ 委託物保管所

必要面積 = 都賣必要面積 × 0.3

④ 用 地

必要面積 = 主要建物의 總建築面積 × 3

⑤ 冷藏庫

平均保管數量 × 平均保管日數 ÷ 1m²當 收容力 ÷ 0.7

概算結果

① 都賣場의 荷置場을 必要面積의 $\frac{1}{3}$로 했을 때……都賣場建物 = 22,221.66m²

② 仲買率은 都賣去來量과 같다(즉 地方으로의 出荷行爲는 禁止되고 있음).

仲買場建物 = 26,666.66m²

③ 委託物保管所 = 3,999.9m²

④ 用地 = {① + ② + ③} × 3 = 52,888.22 × 3
= 158,664.66m² = 158,664.66 × 0.3025
= 47,996.06坪

冷藏庫를 除外하더라도 1日 1千t의 魚類去來量(5年 이후 需給量)을 豫想할 때 都賣市場의

用地로 約 5萬坪이 確保되어야 한다는 槪算結果가 나온다.

2. 改善策

가. 意識의 近代化

李朝 및 前期的市場政策의 基本을 「前朝後市左租右社」라는 儒敎意識의 철저한 施行에 있었다. 物理的市場 立地의 基準이 오늘날 消費者나 政策立案者들의 價値觀으로 持續되고 있다. 生活에 가장 重要한 市場이나 이의 政策이 最重要事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消費者들의 購買意識도 經濟的効率性에만 執着하여 露天市場이나 골목市場의 購買慣習에서 벗어나 品質志向性을 가지며 衞生, 保健, 風味 등의 物理的効率性에 깊은 嗜好를 보이는 意識의 變化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나. 都賣法人의 複數化

將次 低溫流通이 開發될 때는 都賣市場機能이 弱化될 것이라는 展望이 있는데 이는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類似한 流通形態를 가지는 日本의 경우 合法的인 都賣市場 比重은 增大되는 傾向이 있음을 다음 表로 알 수 있다.[9]

表 7 日本 生鮮食料品流通量에서 中央都賣市場의 去來量

(%)

	65	66	67	68	69	70
野菜	41.8	41.5	42.0	41.6	41.7	42.0
果實	44.6	44.2	43.4	42.7	43.0	42.9
生鮮魚類	72.1	80.3	76.1	76.6	84.8	79.3
鹽干加工	31.6	31.1	31.3	31.4	32.2	36.8
牛	7.3	7.1	14.4	15.5	16.6	18.7
豚	8.2	10.1	18.1	14.9	12.7	13.2

오늘날 우리나라 法定都賣市場이 제 機能을 發揮못하는 가장 큰 原因은 都賣代行法人을 單數로 運營케 하여 다만 안이하게 手數料收入에만 依存하는 放慢經營을 許容한 制度執行上의 缺陷에 있다. 集荷 委託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商業資本을 集結케 하여 複數의 競爭體制에서만 出荷主의 利益이 保障된다. 都賣法人은 單純한 委託賣買에만 限定됨이 없이 消費者利益이란 問題意識을 갖고 需給調整力을 가질 만큼의 買取行爲도 積極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大都市, 특히 서울의 경우는 現行制度가 全國의 水產物價格을 主導할 수 없는 終點市場(terminal market)으로 荷物의 to dump하는 市場이 아니고, 全國의 時勢에 따라 다시 出荷할 수 있는 大規模市場(metropolitan market)이 되도록 制度의 改善과 法人의 資質向上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仲買人의 多數化

客商段階는 都賣法人의 資質向上에 의해 소멸, 吸收될 수 있다. 그러나 中都賣商 中販 小仲買人制度가 消費地市場에서 當然視되고 있음은 消費者利益에 全的으로 違背된다. 이는 現行制度가 仲買人業態를 전적으로 手數料商的인 機能으로 把握하고 있기 때문이다. 競買에 參加하는 仲買人은 自己計算과 危險負擔으로 競落品의 流通에 參與하는 供給의 主體的 機關이다. 이들에 附加稅를 課稅케 함은 必需食料品流通에 免稅한다는 法趣旨와 消費稅라야 한다는 法理論上의 矛盾을 가진다. 現行의 生產的이며 零細規模인 小賣商의 資質向上을 위해서 이들의 適格者는 仲買人으로 吸收할 필요가 있다. 仲買行爲와 小賣行爲를 겸할 수 있는 制度的 補强으로 消費者利益에 寄與하여야 한다.

Ⅳ. 產地流通 및 水協의 役割

1. 產地流通의 課題

우리나라 水產物流通에 있어서 世界的規範에서의 特色은 產地市場이 生產者團體에 의해 共販事業의 一環으로 獨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이 形成되는데는 生產漁民들의 自意識의 開發보다 外部의 政策的 環境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 오늘날 產業面에 均衡된 社會正義의 實現이란 側面에서는 生產者組織의 獨占物로 國民的인 受任을 받고 있으나 現在의 流通論議가 다분히 消費者利益이라는 問題意識을 가지는 限에 있어서는 生產者들이 謙虛한 姿勢로 獨占的 共販制度와 改善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가. 施設規模

水產物의 量的膨脹은 높은 增加率로 擴大되고 있었으나 流通改善의 論議는 주로 經濟的效率性에 集中되었다. 水產業의 量的膨脹에 流通環境(marketing infrastructure)이 따르지 못하면서 특히 漁港, 販賣處理場 問題가 큰 課題로 浮刻되기 시작했다. 效率性의 沮害要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海洋汚染이라는 深刻한 課題를 안겨주었다. 漁港 및 市場構造가 比較的 理想的이라는 外國의 예를 參考로 比較해 보았다.[10]

漁港 및 魚市場施設은 漁船繫留場, 販賣場, 處理場, 冷藏庫 그리고 附屬建物, 駐車場, 鐵道引入線 등으로 構成된다. 日本의 경우 中規模漁港인 塩釜(Shiogama) 魚市場의 建設計劃에서 年間揚陸量 142,000t, 1日揚陸處理量 720t을 豫想하고, 販賣場을 7,200m², 處理場 및 事務室建物을 19,246m²로 築造했다. 建物面積만 約 8,000坪이 되는 셈이다. 그 밖의 駐車場, 冷藏庫 등의 用地를 감안할 때 約 25,000坪 가량이 된다. 英國의 小漁港인 Brixham은 年間揚陸量이 2,600t 가량인데 構造物로 市場이 883m², 處理場 130m², 箱子荷置場 177m², 냉장고 112m², 事務室 22m², 其他 627m²로 도합 1,951m²(590.2坪)의 築造物을 가졌었다. 日本의 塩釜漁港을 基準하여 우리나라 主要漁港이 가져야 할 必要用地를 77年度 揚陸量만으로 槪算하면 다음과 같다.

表 8 主要漁港別 必要用地*

主 要 漁 港	77年揚陸量 (q)	必要用地$\left(=\frac{25,000\times q}{142,000}\right)$
仁 川 共 販 場	47,977M/T	8,447坪
釜山共同魚市場	260,363	59,148
麗 水 共 販 場	67,468	11,878
馬 山 魚 市 場	48,170	8,481
木 浦 魚 市 場	50,091	8,819

*塩釜港의 魚市場構造物 8,000坪의 3倍로 用地를 計算했으나 實際는 加工用地까지 包含할 때 約 20倍의 用地를 갖고 있음.

試算結果는 政府의 支援으로 一次的 流通環境助成에 필요한 用地의 넓이다. 실제는 이곳에 隣接한 더욱 많은 流通補助的 機關이 立地하여야 할 것이다.

나. 競賣制度

競賣는 競賣에 參加한 商人들 相互間의 競爭原理에 의해 競落價格이 決定되는 生態를 가진다. 生產者利益이 保護, 增大되려면 競賣行爲는 公開되어 執行되어야 한다. 이런 原則에 따르면 入札式이나 一聲式競賣는 競爭을 鈍化시킨다. 產地市場間에 規格과 等級의 統一을 위해서는 競賣員의 訓練과 資格을 全國的 規模로 統一시킴이 필요하다. 더욱 최근의 消費者意識을 감안한다면 競賣員資格은 生產者組織에서 分離, 獨立시키는 制度上의 補强이 要求될 것이다.

다. 仲買人制度

現行制度에서 특히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法과 附加價値稅法에서는 이들을 單純히 用役을 提供하는 仲介業 내지 手數料商的 業態로 評價하고 있다. 이런 問題가 本質的 業態에 違背되므로 많은 不合理를 惹起시키고 있다.

內陸地에 出荷하는 大規模仲買人의 業態는 Commission Basis로 多段階를 낳는 制度上의 矛盾과 經營의 安易性을 가져 온다. 內陸地出荷仲買人의 資質을 向上시켜 產地에서 直接 Commercial Basis로 出荷할 수 있는 環境을 갖는 것이 필

요하며, 小賣商이나 消費者에 Commercial Basis로 去來하는 小規模仲買人은 消費者利益增大를 위해서는 Commission Basis로 轉換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産地市場內에 충분한 仲買人賣場을 開設하여 大規模小賣市場의 機能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라. 釜山共同魚市場의 歸屬

産地市場이 生産者組織體에 의해 獨占的으로 集荷, 共販되고 있는 基盤은 當該地域의 單位水協組合이 이를 大部分 主管하고 있다. 그러나 大規模揚陸地市場인 仁川, 麗水, 釜山은 여러개의 組合이 共同事業으로 販賣行爲를 하고 있었다. 이 중 仁川과 麗水는 水協中央會가 引受하여 강력한 資金의 뒷받침으로 共販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오로지 釜山共同魚市場만이 그 法的所有가 5個의 水産團體에 속하고, 그 經營과 管理는 暫定的으로 國家가 指定하는 사람이 統轄하고 있다. 水協의 입장으로 볼 때, 全國의 魚類委販의 約 3분의 1을 占할 만큼 중요한 市場인 釜山共同魚市場이 水協 이외의 組織에서 管理할 때 派生되는 어려운 問題가 많으며, 價格支持事業이나 全國的 規模의 流通改善에서 水協의 主導力이 미치지 못할 때 諸障害가 생기게 된다. 管理의 면에서나 組織能率의 면에서도 水協이 引受했을 때 생기는 效果는 充分히 認定할 수 있다. 그러나 5個團體가 中心이 된 私有財産이라는 點에서 보면 效率性만을 위해 劃一的으로 引受하여 管理하는 行爲는 單位組合의 育成을 沮害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오늘날 消費者利益이라는 側面에서 流通의 問題가 提起될 때 지나친 生産者만의 獨占的管理는 새로운 問題點이 되지 않을까 하는 批判의 여지도 있다. 釜山은 당분간 揚陸量이 增加할 것이며 더욱 國家의 支援을 필요로 하는 魚市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運營에 있어서 消費者意識이 反映될 수 있는 體制가 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떤 機關에 歸屬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水協의 流通役割上의 課題

水協은 産地流通과 전국의 水産物流通에 先導的인 役割을 擔當했으며 그 成果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고 있다. 自由主義國家, 그 중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憲法에 經濟行爲의 基本을 個人營業의 自由에 두고 있으며 創意性開發의 極大化를 바라는 制度下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糧政의 基本으로 米價支持와 在庫量管理를 위해 糧穀財政의 累積赤字가 相當額이 되었으며 이것이 貨幣의 增發인플레를 誘發시키는 하나의 큰 要因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政府, 農協은 在庫調整機能을 가졌던 大規模糧穀商을 抹消시킴으로써 앞으로는 좋든 싫든 간에 이 分野에 直接的인 責任을 져야 할 立場에 놓여 있다. 水産物流通에 있어서도 水協의 活動은 環境助成的이며 補助的이고 先驅的이며 牽制的인 方向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 소망스럽다.

가. 加工機能

일반적으로 流通(marketing)은 새로운 需要의 開發이란 點에서 弘報, 廣告機能이 매우 큰 比重을 占하나, 生鮮食料品은 嗜好에의 適應이라는 點에서 加工에 매우 큰 比重을 둔다. 流通의 根本的인 轉換은 流通客體인 商品性의 變化를 前提로 하지 않고는 不可能하다. 先進國일수록 加工이 占하는 比重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水協의 流通은 先驅的役割로서 加工分野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어느나라고 간에 社會發展에 따라 農業이 가지는 國民所得上의 影響은 減少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食料品 그

自體의 絕對的 需要는 增大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서 農業은 본래의 生產性分析 뿐만 아니라 加工, 流通分野까지 다루는 Agribusiness라는 綜合的立場에서 農政을 취급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水協은 그 創始부터 水產製造業協同組合을 그 傘下에 組織함으로써 Agribusiness的 組織體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分野를 擴大開發하는 방향으로 活動하여야 할 것이다.

나. 情報, 弘報機能

政府가 하여야 할 市場情報 및 資料整理를 水協이 擔當하고 있다. 流通改善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一物一價의 法則이 同時的으로 成立하는 市場領域의 擴大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等級과 品質의 標準化作業이 先行돼야 한다.

都賣價格은 심한 變動性을 보이는데 小賣價格은 심한 硬直性을 보인다. 이를 緩和하는데는 消費者購買單位에 맞는 價格情報의 提供이 아쉽다. 특히 陰曆설과 秋夕에는 祭需用生鮮의 價格騰貴가 심한데 이 경우 祭需用으로 잘 쓰이지 않는 갈치, 고등어 등의 魚種의 祭需用開發도 弘報活動에 포함되야 할 것이다.

다. 內陸地共販場

內陸地都市에는 複數의 都賣代行權을 두도록 하여 商人資本의 牽制的인 機能을 發揮케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오늘날 複數市場體制로 直出荷를 꾀하고 있으나 이것은 價格秩序의 混亂을 惹起시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 都市內에 價格主導市場形成이 빨리 이룩되도록 努力해야 하며 商人과의 善意의 競爭을 통해 生產者利益增大에 寄與하여야 할 것이다. 委販事業 뿐 아니라 公益을 위한 組織體로서 需給調整을 위한 積極的인 買取活動도 奬勵되어야 한다. 價格支持事業은 全國의 價格을 支配할 수 있도록 서울 都賣市場을 正常化시켜 이를 中心으로 調整할 때 그 目的이 達成되기 쉬울 것이다. 低價魚의 價格維持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加工施設의 確保가 先決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註1. 柳忠烈, 水產物 需要推定 및 價格變動에 關한 硏究, 1978.6.
2. ——, 中買人에 關한 硏究, 1974.7.
——, 中買人規模의 分岐에 關한 硏究,
3. ——, 農水產物 都賣市場制度에 關한 硏究(Ⅱ), 1977.9.
4. 文定昌, 朝鮮朝의 市場, p.160
5. 朴元善, 客主, p.223
6. 柳忠烈, 農水產物 都賣市場에 關한 硏究(Ⅰ), 1976.
7. 釜山共同魚市場 企劃室調査
8. 京都市 中央都賣市場の長期改善方策に關する報告書, 1967.12.
9. 廳山又一郎(編著), 生活者と食品, p.173, 1976.4.15
10. F.A.O, *Fishing Ports and Markets*, p.186